



## Quality of Sexual Life in Married Women: Its Factor Structure and Determinants\*

Yang, Eun Young<sup>1)</sup>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College of Nursing and Health

## 기혼 여성에 있어서 성생활의 질: 그 요인 구조와 결정 변인\*

양 은 영<sup>1)</sup>

1) 삼육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examined the quality of the sexual life among married women in terms of the factor structure of Sexual Quality of Life(SQOL) and evaluated the predictive value of 11 variables for SQOL. **Method:** Two hundred and ninety-three married women completed the Korean version SQOL scale with information on age, education, length of marriage, family income, health, sexual knowledge, coital frequency, harmony with family members, levels of affection, and general and sexual communication. Data were analysed with principal components and regression analyses. **Result:** The SQOL scale had two clearly defined factors, Negative Quality of Sexual Life and Positive Quality of Sexual Life, on which all scale items were significantly loaded, accounting for 54.3% of the total variance. Independent regression analysis showed all variables except education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SQOL with interpersonal

variables (general and sexual communication, affection and harmony with family members) being the most powerful predictors. However when the 11 variables were combined together in stepwise analysis, only 6 variables (general communication, age, affection, coital frequency, sexual knowledge and health) were significant, accounting for 39% of the total variance. **Conclusion:** The Korean version SQOL scale is a good measure to tackle SQOL in married women. To enhance SQOL, strengthening interpersonal interaction focusing on general/sexual communication, affection and harmony with family members seems to be more important than sexual activitie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Key words :** Women, Sexuality, Sexual quality, Sexual health, Sexual determinant

\* This research was partly supported by the Sahmyook Nursing and Health College.

\* 본 논문은 부분적으로 삼육간호보건대학 2007년도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투고일: 2007. 4. 13 1차심사완료일: 2007. 4. 17 2차심사완료일: 2007. 5. 16 3차심사완료일: 2007. 6. 7 최종심사완료일: 2007. 6. 11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ang, Eun Young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College of Nursing and Health

29-1 Whikyung-Dong, Dongdaemun-Ku, Seoul 130-7111, Korea.

Tel: 82-2-3407-8560 Fax: 82-2-3407-8560 E-mail: yangyang@snhc.ac.kr

## 서 론

여성의 성에 관한 환경은 최근 이십 여 년 동안 급변하였다. 특히 다양한 피임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임신의 위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즐거운 성에 초점을 둔 여성의 성적 웰빙(sexual wellbeing)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고조되었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범람하는 성 관련 정보들은 성에 대해 보다 진보적이고 자유스러운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으며 여성들로 하여금 성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하고 성관계를 할 때마다 오르가즘을 꼭 느껴야 한다는 기대를 갖게 해준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서 여성들이 성 만족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와 기법에 관한 영상물이나 책이 많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매체들은 주로 성생활의 행동적, 또는 기능적인 차원에 초점을 둔 내용이 대부분이며 전반적인 성생활의 질이나 성적 웰빙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고 있다.

국내외의 학문적인 연구문헌을 살펴보다라도 기혼여성의 성 만족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들은 상당 수 발견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성생활의 질(quality)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최근 Symonds(2002, 2003)는 성 만족 보다 폭넓은 개념인 sexual quality of life(SQOL), 즉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성생활의 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Symonds는 SQOL과 '성생활의 질'(quality of sexual life)이라는 개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SQOL척도의 거의 모든 문항에서는 실제로 '성생활'(sexual life)에 관한 질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상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성생활의 질'(quality of sexual life)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성생활의 질'은 긍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성적 웰빙'(sexual wellbeing), '성 만족'(sexual satisfaction), 그리고 '성 건강'(sexual health) 등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으나, 가치를 두지 않은 중성적인 개념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달리한다. 또 상기의 유사한 개념들은 주로 성행위, 또는 그 과정이나 성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SQOL은 '배우자와의 전반적인 성생활을 통해서 인지되는 성적 자긍심, 심리적, 정서적 건강상태,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배려와 성생활 전반에 대한 느낌'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SQOL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바람직하고 만족스러운 높은 질(high quality)의 성생활을 영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SQOL 개념은 Hong(2005)이 제시한 삶의 여섯 가지 차원, 즉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사회적, 성적생활 차원 중에서 성 생활의 질은 다른 차원의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는 이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성생활의 질이란 개념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

히 '성 만족'(sexual satisfaction)이란 유사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 만족은 성생활의 질이란 개념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성적으로 불만족하면 개인이 경험하는 욕구나 동기, 정서적인 상태, 수면 등에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성생활의 질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결혼생활의 붕괴까지도 초래한다. 따라서 성적인 만족은 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전반적인 결혼생활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Byers, 2005; Hong, 2001; Hong, 2005; Kim & Ahn, 2000; Ko, 2004; Nam, 2003; Renaud, Byers, & Pan, 1997; Sprecher, 2002).

여성의 성 만족을 연구한 국내의 문헌을 살펴보면, 성 만족을 '남녀 또는 부부간의 성관계 또는 성행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여성의 주관적 기대와 일치하는 정도'라는 정의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예: Kim & Ahn, 2000; Kim, Chang, & Kang, 1997; Lee & Moon, 2000). 이 같은 정의는 그 내용에 표현된 바와 같이 성교의 빈도, 절정감, 채워, 전회 등과 같은 성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행동적인 차원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성 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대화, 성적 대화 또는 성적인 자기표현(Byers, 2005; Byers & Demmons, 1999; Bridges, Lease, & Ellison, 2004; Kim, 1996; Ko, 2004; Lee & Kim, 2003; Nam, 2003), 성태도, 성가치관, 성지식(Kim, 2000; Kim, 2002; Lee & Moon, 2000; Rosenzweig & Daily, 1989), 성교 빈도와 오르가즘 빈도(Lawler & Risch, 2001; Lee & Kim, 2003; Renaud et al., 1997), 배우자에 대한 충실성(commitment), 친밀감 또는 애정강도(Seo, 2002; Sprecher, 2002), 자아개념(Kim & Ahn, 2000), 자라는 가정환경(Bridges et al., 2004; Hong, 2001; Ko, 2004), 그리고 직업, 소득수준, 연령, 결혼기간, 교육수준(Chang, Kang & Kim, 1998; Hong, 2001; Jang, 1997; Kim, 1996; Kim, 2002; Lee & Kim, 2003; Lee & Moon, 2000; Renaud et al., 1997) 등의 변인들이다. 이러한 변인들이 여성의 성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밝혀졌으나 전반적인 성생활의 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성적 웰빙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성행위 중심의 성 만족 뿐 아니라 전반적인 성 생활의 질(qualit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성생활의 질에 대한 개념 설정이나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ymonds의 SQOL 척도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로 번안하여,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요인구조를 탐색하였다. 아울러 성만족 관련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변인들이 성

생활의 질에도 영향을 주는지, 만일 영향을 준다면 어떠한 강도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Bridges 등(2004)은 성만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면서 여성의 성만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신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 자라온 환경과 가족원과의 관계에서 오는 가족적인 변인, 그리고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게 되는 배우자와 관련된 변인 들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이들 세 범주에서 선택되었으며 국내외 성만족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11개의 변인들로 구성되었다.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성지식 수준과 같은 개인적인 변인, 월평균 수입, 가족과의 화목도, 결혼기간과 같은 가족적인 변인과 애정강도, 성관계 빈도, 일반적인 대화와 성적대화 같은 배우자와의 관계변인 등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반적인 성생활의 질에 관한 후속 연구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여성 성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성교육, 상담, 치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60세의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글로 변환된 Symonds의 SQOL 척도를 사용, 성생활의 질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요인구조를 분석한다. 아울러 기혼여성에게 있어 성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11개 예측변인들의 기여도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해 중다변인적 통계방법인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서술한다.

##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20세에서 60세까지 기혼여성을 편의 표집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293명의 자료가 분석되었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41.0세, 표준편차는 10.13으로 거의 모든 연령층에 골고루 분포되었다.

자료 수집은 삼육간호보건대학 간호과에서 '연구방법'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연구 자료수집의 원리와 절차에 관한 강의를 받은 후 그 실습 목적으로 2005년 9월부터 2006년 6월 까지 세 학기에 걸쳐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미리 표준화 된 절차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이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기위해 일주일의 기간을 주었다. 특히 성에 관한 개인적인 정보의 비밀보장과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거 시에는 참가자가 완성된 질문지를 직접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한 다음 학생을 통해 무기명으로 연구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특별히 자료수집 대상으로는 친인척을 제외한 정직하며 사실대로 질문에 응할 수 있는 주변인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다. 질문지의 모든 문항에 응답하는 데는 대략 20~25분 정도 걸렸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Symonds(2002, 2003)가 여성을 위해 개발한 SQOL 척도로서, 이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발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이 척도의 18개 문항은 성생활의 세 가지 측면, 성적인 자긍심과 성생활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상태,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성에 관한 평가를 주관적으로 인지적 차원에서 측정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문항은 "내 성생활을 생각하면,"으로 시작하며, 참가자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 차원에서 자신의 성생활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6점 척도, 즉 '전적으로 동의'(1점)로 부터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6점)을 사용하여 반응하게 된다. 18개 문항 중 13개의 문항은 성생활의 질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였다. 예를 들면 '내 성생활을 생각하면 나는 좌절을 느낀다', 또는 '나는 성생활과 관련된 행동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등이다. 나머지 5개 문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술되었다. 예를 들면 '내 성생활을 생각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낀다', 또는 '내 삶을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성생활은 즐거운 부분이다' 등이다. 부정적으로 기술된 문항의 점수는 reversing 절차를 거쳐 분석 하였다. Symonds, Boolell과 Quirk(2005)는 SQOL 척도를 요인 분석한 결과, 18개의 모든 문항이 유의미하게 적재된 한 개의 요인만이 추출되었으며, 이 요인은 삶의 여러 차원 중에서 '성생활의 질'(quality of sexual life)을 측정한다고 해석하였다. 심리 측정적 지수에 관해서는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가 .80, 수렴(convergent) 타당도는  $r = .65$ 로 보고하였다. Symonds는 2003년 3월 쿠바의 아바나에서 개최된 제16차 세계 성학회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면서 SQOL척도가 이미 8개 국어로 번역되었으며, 성생활의 질에 관한 학술적, 임상적 연구를 위해 다른 문화권에서도 널리 사용되기를 권장하였다(Symonds, 2003). 본 연구자는 개인적으로 이메일과 국제전화로 통해 SQOL 척도 사용에 관한 추인을 받았다(Symonds, T., personal communication, May 9, 2007).

영문 SQOL 척도를 한글로 변환하는데 있어 문화 간 차이와 오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역번역(back-transl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영문 척도를 우리나라 성문화에 맞게 한글로 번역, 수정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만들어진 최종안을 20여명의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 그 사용 가능성을 검

증하였다. 번역된 문항들은 다시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대학교수에게 의뢰하여 역번역 과정을 거쳐 의미적인 차원에서 두 척도의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영문학 교수 한 명과 간호학 교수 2명의 비교, 감수를 받은 후 약간의 필요한 수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한국어판 SQOL 전체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68이었으며, 각 문항이 제외되었을 때의 Cronbach's alpha는 .856~.868의 범위를 보여 모든 문항의 내적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Spearman-Brown Split-Half와 Guttman Split-Half 계수도 각각 .879로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질문지의 18개 문항 이외에 참가자의 개인적인 특성, 가족과 가족환경에 관련된 질문, 그리고 배우자 또는 성생활과 관련된 20여개의 질문과 문항들이 질문지에 포함되었다. 성지식, 배우자와의 애정 강도, 가족과의 화목도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주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며, 부부간의 일반적인 대화와 성적 대화는 3점 척도, 건강상태는 4점 척도, 학력은 5점 척도, 월평균 수입은 6점 척도, 그리고 성관계 빈도는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령과 결혼기간은 실제 햇수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 3.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dow Version 12.0을 사용하여 두 가지 분석을 목적으로 전산처리 하였다. 첫째, 한글판 SQOL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구적 요인분석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를 사용하였다. 초기 요인의 추출(initial factor extraction)과 회전(rotation), 그리고 eigenvalue 기준과 scree test, 유의미한 적재량에 관한 내용은 분석 결과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둘째, 기혼여성의 SQOL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이를 예측할 수 있는 11개의 독립(예측)변인을 사용한 중다 회귀분석이다. 회귀분석에서는 두 모델을 사용하였다. 11개 예측변인의 연합적인 예측기여도를 보기 위한 단계적(stepwise) 모델과 개별 변인의 예측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독립적(independent) 방법이다. 사용된 예측변인들은 연령, 학력, 건강상태, 결혼기간, 월수입, 성지식, 성관계 빈도, 배우자와의 성적대화, 일반적인 대화, 애정강도, 가족원과의 화목도 등이다. 11개의 변인과 SQOL 척도의 점수는 모두 등간 또는 비례 척도를 사용하였다.

## 연구 결과

### 1. 참가자의 특성과 예측변인

이 연구에 참가한 대상자들의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1>

과 같다.

참가자의 평균연령은 41.0세(SD=10.13)로서 41~50세 집단의 빈도가 좀 높긴 하지만 20세에서 60세까지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한국 기혼여성의 연령대를 적절히 커버하고 있다. 교육 수준은 집단별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나 고졸 이상의 학력이 절대 다수인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다. 건강상태와 월수입은 극단적인 상하집단에는 빈도가 낮고 중간집단에 빈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 역시 현실과 부합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참가자의 평균 결혼기간은 14.1년(SD=10.41)으로서 연령 변인과 거의 같은 분포를 보여준다. 파트너와의 성적 대화는 '잘 이루어진다'의 빈도가 높은 반면,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그저 그렇다'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인 모두 참가자의 상당수(성적대화 6.5%, 일반대화 16%)가 부부간에 대화 소통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변인을 비교해 보면 일반 대화보다 성적대화가 더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식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이 전체 연구 대상자의 3분의 2를(67.2%) 초과하며, 가족과의 화목도(66.1%)와 배우자와의 애정 강도(61.6%)도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정환경은 애정 강도와 화목도 차원에서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6점 또는 그 이하의 가정도 상당수가 있음을 가능할 수 있다. '성관계의 빈도'는 연구 대상자의 연령대(20세~60세), 그리고 성적욕구 수준과 성기능의 개인차를 생각해 볼 때 '거의 매일'에서 '어쩌다 한번'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두 집단은 '주에 2~3번'(24.6%)과 '주에 한번'(25.9%)으로 나타났다.

### 2. 요인분석 결과

한글판 SQOL 척도를 사용, 수집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18문항 간 Pearson 상관계수 matrix를 얻은 후에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를 실행하여 그 요인구조를 탐색하였다. Eigenvalues가 1.0 이상의 Kaiser 기준을 사용한 결과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회전을 위한 요인의 명확성과 Kaiser 기준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해 Cattell의 scree test를 사용한 결과 역시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해석상의 용이도를 높이고 추출된 요인 사이의 독립성( $r=.00$ )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출된 두 요인을 varimax rotation을 적용, 분석하였다. 처리 결과 아래와 같은 최종적인 요인구조를 얻게 되었다.

<Table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글판 SQOL 척도는 두개의 요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요인은 전체변량의 35.3%(eigenvalue=6.35)를, 둘째 요인은 19.0%

<Table 1>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redictor variables for regression analyses (N=293)

Characteristics (variables)	f	Percent(%)	Characteristics (variables)	f	Percent(%)
Age* (M=41.0, SD=10.13)			Sexual knowledge* (M=7.04**, SD=1.75)		
1) 20~30세	80	27.3	1) 4.0 or less	19	6.5
2) 31~40세	54	18.4	2) 5.0~6.5	77	26.2
3) 41~50세	106	36.2	3) 7.0~8.0	145	49.5
4) 51~60세	53	18.1	4) 9.0~10.0	52	17.7
Level of education (M=3.32, SD=0.80)			Sexual communication with partner (M=1.79, SD=.69)		
1) Primary school	4	1.4	1) Good	167	57.0
2) Middle school	38	13.0	2) So, so	107	36.5
3) High school	124	42.3	3) Little or no communication	19	6.5
4) University	115	39.2	Frequency of coitus (M=4.01, SD=2.16)		
5) Graduate school	12	4.1	1) Almost everyday	14	4.8
State of health (M=2.63, SD=0.63)			2) 2~3 times per week	72	24.6
1) Bad	6	1.7	3) Once per week	76	25.9
2) Not so good	117	39.9	4) Once per 10 days	32	10.9
3) Good	151	51.5	5) Once per 2 weeks	24	8.2
4) Very good	19	6.5	6) Once per 3 weeks	15	5.1
Duration of marriage* (M=14.1, SD=10.41)			7) Once per month	22	7.5
1) 4 years or less	91	31.0	8) Less than once per month	38	13.0
2) 5~15 years	58	20.0	General communication with partner (M=1.49, SD=.61)		
3) 16~25 years	104	35.5	1) Good	107	36.5
4) 26~35 years	40	14.0	2) So, so	139	47.4
Monthly family income (M=3.21, SD=1.20)			3) Little or no communication	47	16.0
1) ₩1,000,000 or less	11	3.8	Harmony with family members* (M=7.87**, SD=1.46)		
2) ₩1,000,000~1,999,999	80	27.3	1) 5.0 or less	22	7.5
3) ₩2,000,000~2,999,999	98	33.4	2) 6.0~7.0	74	25.3
4) ₩3,000,000~3,999,999	58	19.8	3) 8.0~8.5	106	36.1
5) ₩4,000,000~4,999,999	32	10.9	4) 9.0~10.0	91	30.0
6) Above ₩5,000,000	14	4.8	Level of affection with partner* (M=7.51**, SD=1.89)		
			1) 4.0 or less	15	5.1
			2) 5.0~6.0	68	23.2
			3) 7.0~8.5	108	26.8
			4) 9.0~10.0	102	34.8

\* Data were grouped to show the distribution of scores on the item, however, actual scores were used when analysed.

\*\* Scores based on 10-point rating scales.

(eigenvalue=3.42)를 설명하였으며, 두 요인이 합하여 전체변량의 54.3%를 설명하였다. 적재량의 기준을 .3 또는 그 이상으로 하였을 때 각 요인에 적재된 문항을 살펴보면 첫째요인은 문항 2, 3, 4, 6, 7, 8, 10, 11, 12, 14, 15, 16, 17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문항은 성생활의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만스러운 질적 측면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부정적인 성생활의 질’이라 명명되었다. 둘째요인에 적재된 문항은 1, 5, 9, 13, 18 로서 성생활의 바람직하거나 만족스러운 질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어 ‘긍정적인 성생활의 질’이라 명명되었다. 18개 문항 중 어느 문항도 두 요인에 분산되어 유의미한 적재량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적재량의 기준을 .3 또는 그 이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항이 .56 이상의 적재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Varimax rotation이라는 통계적 처리의 원리에 따라 한글판 SQOL 척도는 분명히 독립적인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Table 2>에서 보여주는 각문항의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첫째요인에 부하된 문항들은 그 평균치가 4.00 이상이며 둘째요인에 부하된 문항들은 3.10 이하로서 첫째요인에 부하된 문항들의 평균치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의 표준편차는 1.17~1.43에 분포되어 있어 변산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통계절차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켜 준다.

### 회귀분석 결과

Symonds 등(2005)은 SQOL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18개의 문항이 모두 적재된 하나의 요인으로 성생활의 질(quality of sexual life)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성생활의 질에 관한 종합적인 점수를 얻고자 할 때에는 전체문항의 점수를 합한 총 점이나 평균치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였다. 본 연구의 요인 분

<Table 2> Varimax factor structure of sexual quality of life scale

Items	Factors		Mean	SD
	I	II		
2. I feel frustrated.*	.71**		4.73	1.19
3. I feel depressed.*	.67		4.69	1.21
4. I feel like less of a woman.*	.63		4.97	1.20
6. I have lost confidence in myself as a sexual partner.	.71		4.81	1.17
7. I feel anxious.*	.73		4.62	1.24
8. I feel angry.*	.71		4.92	1.20
10. I worry about the future of my sexual life.	.71		4.07	1.37
11. I have lost pleasure in sexual activity.	.67		4.53	1.27
12. I am embarrassed.*	.77		4.58	1.22
14. I try to avoid sexual activity.	.63		4.43	1.17
15. I feel guilty.*	.67		4.75	1.28
16. I worry that my partner feels hurt or rejected.*	.65		4.30	1.27
17. I feel like I have lost something.*	.72		4.50	1.34
1. It is an enjoyable part of my life overall.*		.75	2.75	1.20
5. I feel good about myself.*		.77	2.96	1.18
9. I feel close to my partner.*		.83	2.65	1.32
13. I feel that I can talk to my partner about sex matters.*		.72	3.00	1.43
18. I am satisfied with the frequency of sexual activity.*		.56	3.09	1.31

\* The item starts with "When I think about my sexual life".

\*\* Factor loadings >.30 are presented.

석에서는 부정적인 성생활의 질과 긍정적인 성생활의 질, 두 요인이 확인되었으나 부정적인 성생활의 질 요인에 적재된 문항의 점수를 뒤바꾸면(reversing) 긍정적인 성생활의 질 요인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18개 문항 점수의 평균치를 계산하여 종속변인, 즉 성생활의 질(SQOL)점수로 사용하였다. SQOL을 예측하는데 사용된 독립(예측) 변인은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성지식 수준과 같은 개인적인 변인, 월평균 수입, 가족과의 화목도, 결혼기간과 같은 가족적인 변인, 그리고 애정강도, 성관계 빈도, 일반적인 대화와 성적대화 같은 배우자와의 관계변인 등이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는 두 모델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모델인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에서는 11개의 예측변인이 연합해서 SQOL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가를 분석한다. 첫 단계에서는 11개 변인 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예측변인이 사용되며 이후 매단계마다 이미 사용되지 않은 예측변인 중에서 partial 상관계수를 기준으로 가장 강력한 변인을 하나씩 선택하여 회귀방정식에 추가한다. 그러므로 매 단계마다 회귀방정식에 포함된 예측변인들의 중복되지 않는 종합적인 예측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1단계 이후부터는 예측변인간의 중복된 기여도는 분명히 파악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11개 예측변인들의 개별적인 예측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모델인 독립적(independent) 회귀분석이 필요하다. <Table 3>은 두 모델의 분석 결과이다.

단계별 분석 결과, 11개의 예측변인을 모두 사용하면 SQOL

의 변량을 40%까지 예측할 수 있으며, 아래의 회귀방정식으로 SQOL 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

$$SQOL \text{ 점수} = (3.19) - .30 \times \text{일반대화} + .02 \times \text{연령} + .08 \times \text{애정강도} - .07 \times \text{성관계빈도} + .06 \times \text{성지식} + .13 \times \text{건강상태} - .13 \times \text{성적대화} + .01 \times \text{결혼기간} + .03 \times \text{월평균수입} - .03 \times \text{가족과의 화목도} + .02 \times \text{학력}$$

이 회귀방정식은 통계적으로  $p < .001 (F=17.37)$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계별 예측도의 변화량을 살펴보면(Table 3의 R square change, F change 참조) 11개의 변인 중 6개의 변인만을 연합해서 사용해도 SQOL 변량의 39%( $F=30.4, p < .001$ )를 예측, 설명해 준다. 이 들 6개의 변인은 배우자와의 일반 대화, 연령, 애정강도, 성관계 빈도, 성지식, 그리고 건강상태 변인으로서, 단계 별 예측도 증가율은 각각 18%( $p < .001$ ), 10%( $p < .001$ ), 5%( $p < .001$ ), 3%( $p < .001$ ), 2%( $p < .01$ ), 1%( $p < .05$ )로 나타났다. 나머지 5개 변인들의 예측 기여도는 모두 합해도 1% 정도에 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첫 6개의 변인을 사용하여 SQOL을 예측하는 것(39%)과 11개 변인을 모두 사용하여 예측하는 것(40%)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11개의 변인을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학력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SQOL을 예측하는데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적 예측 기여도는 배우자와의 일반대화가 18%, 성적대화가 16%, 애정강도가 12%였으며, 가족원과의 화목도가 8%, 건강상태가 6%, 연령, 성관계 빈도, 성지식이 각각 5%, 그리고 월수입과 결혼기간이 각각 4%였다. 교육수준의 예측 기여도는

<Table 3> Prediction of sexual quality of life from 11 predictor variables

Step	Analysis/Variables	R	R <sup>2</sup>	R <sup>2</sup> Change	F Change	F Over-all	B
<b>Stepwise analysis</b>							
1	General communication with partner	.43	.18	.18	64.27***	64.27***	-.30
2	Age	.53	.29	.10	41.51***	57.39***	.02
3	Level of affection with partner	.58	.34	.05	21.81***	48.30***	.08
4	Frequency of coitus	.60	.36	.03	12.46***	40.78***	-.07
5	Sexual knowledge	.62	.38	.02	7.59**	34.90***	.06
6	State of health	.63	.39	.01	5.10*	30.35***	.13
7	Sexual communication with partner	.63	.39	.008	3.65	26.78***	-.13
8	Duration of marriage	.64	.40	.004	1.98	23.76***	.01
9	Monthly income	.64	.40	.002	.89	21.21***	.03
10	Harmony with family members	.64	.40	.002	.72	19.14***	-.03
11	Level of education	.64	.40	.000	.21	17.37***	.02
							(Constant 3.19)
<b>Independent analysis</b>							
1	General communication with partner	.43	.18			64.27***	-.43
1	Sexual communication with partner	.39	.16			53.55***	-.39
1	Level of affection with partner	.35	.12			40.10***	.35
1	Harmony with family members	.28	.08			24.45***	.28
1	State of health	.25	.06			19.07***	.25
1	Age	.22	.05			14.58***	.22
1	Frequency of coitus	.22	.05			14.22***	-.22
1	Sexual knowledge	.22	.05			14.07***	.22
1	Monthly income	.20	.04			11.58***	.20
1	Length of marriage	.19	.04			10.51***	.19
1	Level of education	.03	.001			.18	-.03

\* p<.05, \*\* p<.01, \*\*\* p<.001

.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논 의

여성의 성 만족에 관한 주제는 비교적 많이 연구되었으나 전반적인 성생활의 질(quality)을 주제로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성생활의 질을 명확히 정의할 만큼 연구 결과가 축적되지 않았다. 그러나 SQOL 척도에서 사용된 용어나 조작적인 표현에 근거하면 ‘전반적인 성생활과 관련해서 여성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느낌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성생활의 질’이라는 construct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Symonds의 SQOL 척도를 한글로 번안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SQOL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성만족 연구에서 널리 사용된 11개의 변인과 SQOL과의 관계를 회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특정한 연령 집단이 아닌 20세에서 60세까지 성생활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모든 연령층의 기혼 여성을 포함하였다.

## 한글판 SQOL 척도의 요인구조

한글판 SQOL 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하여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와 Varimax 회전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18개의 모든 문항이 두 개의 독립적인 요인에 중복되지 않고 높은 적재량(.56~.83의 가중치)과 함께 적재되었다. 이 두요인의 설명 변량은 각각 35.3%, 19.0%이며, 누적해서 SQOL 전체 변량의 54.3%를 설명하였다. 첫째 요인에 부하된 13개의 문항은 성생활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성적 자긍심(섹스 파트너로서 자신감 상실, 여자의 구실을 못함 등), 바람직하지 못한 심리적, 정서적 상태(좌절감, 우울, 불안, 분노, 당황, 걱정, 등), 부정적인 행동(성행위 회피),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배려(파트너 마음에 상처 걱정 등)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포함해서 성생활 전반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불만스러운 질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 요인을 ‘부정적인 성생활의 질’이라고 명명하였다. 둘째 요인에 부하된 5개의 문항은 성생활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성적 자긍심(내 자신에 대해 좋게 느낌), 바람직한 정서적 상태(성생활은 즐겁다), 긍정적인 배우자와의 관계(파트너와의 친밀감, 성적 대화), 그리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의 빈

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들은 성생활 전반에 대한 바람직하거나 만족스러운 질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둘째 요인은 '긍정적인 성생활의 질'이라고 명명하였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는 영문판 SQOL 척도의 요인분석(Symonds et al., 2005) 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Symonds 등의 연구에서는 18개의 모든 문항이 부하된 한 개의 요인만이 추출되었으며, 이를 성생활의 질(quality of sexual life)이라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성생활의 질'과 같이 문화적 배경이 민감하게 반영되는 척도에서는 똑같은 개념을 측정한다 해도 그 요인구조의 결과에 문화적 특성이 당연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두 요인분석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면, Symonds 등의 연구에서 보여준 하나의 요인, SQOL은 가치 개념을 두지 않은 총체적인 '성생활의 질'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보여준 두 요인 구조는 SQOL에 가치 개념을 부여해서 긍정적이거나 바람직한 또는 부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SQOL의 상반된 두 측면을 분리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해석하면, 두 연구 결과에서 보여준 18개의 문항은 예외 없이 모두 높은 적재량을 갖고 있으며, 특히 본 연구의 경우 어느 문항도 두 요인에 분산되어 중복 적재 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흑백논리에 입각한 두 가치기준에 따라 성생활의 질을 측정하려는 한국인의 정서와 심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두 요인분석의 결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상이한 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요인구조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통계적인 해석은 아마도 문화적 배경이 다른 참가자들이 질문지에 반응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영향을 받은 듯 여겨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부정적인 성생활의 질 요인에 유의미하게 부하된 항목들을 살펴보면 모두 바람직하지 못한 부정적인 표현이다. 예를 들어, "내 성생활을 생각하면, 나는 좌절을 느낀다, 나는 우울해 진다, 나는 죄책감을 느낀다" 등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문항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기 위해 다분히 과잉하게 반응(부정)하는 것이 한국문화이다. 반면 긍정적인 성생활의 질 요인에 부하된 항목들은 모두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예를 들면, "내 삶을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성생활은 즐거운 부분이다", "내 성생활을 생각하면, 나의 파트너와 친밀감을 느낀다" 등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문항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사실보다 여러개 보이려는 모습도 한국문화의 한 측면이다. 이러한 문화적인 속성이 통계 수치에도 잘 반영되어 부정적인 성생활의 질 요인에 부하된 부정적인 문항들의 평균치는 4.07~4.97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이들 부정적인 문항에 "약간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많이 동의하지 않는다" 반응을 보여 주었다. 긍정적인 성생활의 질 요인에 부하된 긍정적인 문항들의 평균치는 2.65~3.09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해당 문항에 대해 "약간 동의하는" 수준을 나타내

었다.

척도를 개발함에 있어 최근의 경향은 다차원적인 척도 보다는 하나 또는 두 개의 차원만을 측정하며, 문항 수는 가급적 적으면서 신뢰도는 높은 측정도구를 선호한다. 한글판 SQOL 척도는 두 요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문항의 수도 18개로써 비교적 적은 편이다. 문항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전체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68, 각 문항이 제외되었을 때의 Cronbach's alpha 범위는 .856-.868로서 모든 문항의 내적 신뢰도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Spearman-Brown Split-Half와 Guttman Split-Half 계수도 각각 .879로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SQOL 척도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대상으로 기혼자나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는 모든 연령층에 사용할 수 있다.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임상적인 케이스, 즉 성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성기능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척도이다. 따라서 성생활의 질에 관련된 추후 연구에서 한글판 SQOL 척도가 널리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동시 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검증할 유사한 척도는 없으나 성 만족 척도를 대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성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예측 변인

SQOL을 예측할 수 있거나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찾아내어 그 속성을 연구하고 실제의 성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특히 성 교육, 상담, 치료에 종사하는 간호 전문가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11개의 예측변인 중 교육수준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은 기혼여성의 SQOL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개별적인 예측 기여도의 강도에 따라 나열하면 일반적인 부부대화(18%), 성적대화(16%), 애정강도(12%), 가족과의 화목도(8%), 건강상태(6%), 연령(5%), 성교빈도(5%), 성지식(5%), 월평균수입(4%), 그리고 결혼기간(4%)순이다. 이들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특히 일반적인 부부대화, 성적대화 그리고 애정강도 변인은 다른 변인에 비해 성생활의 질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수준은 성생활의 질을 예측하는데 별로 기여(1%)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11개의 변인을 단계적으로 연합해서 기혼여성의 SQOL을 예측해 보았더니 서로 중복되는 기여도 때문에 6개의 변인이 39%( $p < .001$ )정도 까지 예측이 가능하였다. 이들은 배우자와의 관계 변인(일반적인 부부대화, 애정강도), 개인적인 변인(연령, 건강상태), 성과 관련된 변인(성교빈도, 성지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전반적인 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여도는 다를지라도 이 들 세 가지 종류의 요인이 모두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남은 5개의 변인은 연합해서 겨우 1% 정도의 미미한(NS  $p>.05$ ) 기여도를 증가시켰다. 단계별(stepwise) 모델의 결과를 심층 분석해 보면, 개별적인 예측 기여도가 높은 부부대화, 성적대화, 애정강도, 가족과의 화목도 변인은 서로 공유하는 예측 기여도(공변량)가 높기 때문에 부부대화변인이 이들을 대표하여 제1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선택되었으며, 공유하는 예측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 성교빈도, 성지식, 건강상태 변인이 그 다음 단계에서 순차적으로 선택되었다.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애정강도 변인의 경우 부부대화 변인과 공유하는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SQOL에 대한 그 변인만의 독특한 예측 기여도 때문에 제3단계에서 유의미하게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11개의 변인 중 10개의 변인은 개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들을 연합하면 성생활의 질을 40%까지 밖에 예측할 수 없다. 나머지 60%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다. 이 들을 찾아내는 것은 후속 연구의 몫이라 하겠다.

본 연구 결과는 기혼 여성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SQOL의 결정 변인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개인 간의 환경적, 정서적, 문화적인 차이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관계성 변인(부부대화, 애정강도 등)이 성관련 변인(성교빈도, 성지식 수준)이나 개인적인 특성 변인(건강상태, 연령, 월수입, 결혼기간 등)보다는 성생활의 질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성교빈도나 오르가즘, 채위 등 성행위의 방법에 근거한 성 만족만으로는 성생활의 질을 높일 수 없으며 여성의 성 만족은 필연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성에서 탐구해야 한다는 Bridges 등(2004)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한다. 또 여성의 성 만족은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 부드러운 대화, 상대방에 대한 깊은 감정에서 온다는 Bell과 Bell(1972)의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Lawrence와 Byers(1995)는 부부간의 원활한 일반적인 대화, 자유로운 성적대화, 애정강도 등을 총괄하여 '부부관계의 질'(relationship quality)이라 하였으며, 부부관계의 질과 성 만족은 서로 양방향으로 영향을 준다는 '성 만족에 관한 배우자간의 상호교환 모델'(interpersonal exchange model of sexual satisfaction)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여성의 SQOL도 이 모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1997)은 여성이 성 만족을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네 요인으로 신체적 요인(성빈도, 오르가즘, 건강상태 등), 정서적 요인(애정, 배려, 정서적 친밀감 등), 대인 관계적 요인(부드러운 대화, 신뢰감, 등)과 환경적요인(privacy, 특별한 분위기 등)을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분류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이 들 네 가지 요인이 여성에게 있어 성생활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환경적 요

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월평균 수입 변인, 역시 하나의 중요한 예측변인으로서 성생활의 질을 4% 예측, 설명하였다. 이미 40여년 전에 Rainwater(1966)는 생활수준에 따라 여성의 성만족도가 다르며 상류층이 하류층보다 더 높다고 제시한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마도 부부간의 역할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특이한 점은 11개 예측 변인 중 교육수준은 성생활의 질과 유일하게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성만족이 높다는 Chang 등(1998)의 연구결과와 상반되지만 Kim과 Ahn(2000), 그리고 Jang(1997)의 결과를 지지해 준다. 본 연구의 SQOL 개념과 다른 연구에서 사용된 성만족의 개념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10년 전에 비해 현대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학력 수준은 월등히 높아졌으며 디지털 문화의 발달로 성에 대한 지식이나 교육이 일반화 되어 교육수준에 따른 특별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 결론 및 제언

본연구의 결과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성교육, 상담, 치료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간호 전문가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성생활의 질이 기혼 여성 또는 부부의 성을 연구함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성생활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Symonds의 영문판 SQOL가 역번역 과정을 통해 한글판 척도가 만들어졌다. 요인구조상의 구성타당도와 내적신뢰도 등 심리측정적 지표들도 만족스럽게 확인되었다. 성생활의 질을 다루는 간호학 분야 또는 인접 분야의 추후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기를 기대한다(부록 참고).

성 만족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중요한 변인들이 교육수준을 제외하고 모두 성생활의 질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건강상태, 결혼기간, 월평균 수입, 성지식, 성관계 빈도 등도 성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일반적인 대화, 성적인 대화 또는 애정 강도와 같은 부부간의 친밀한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부부관계 또는 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이나 개인적인 교육, 상담, 치료 과정에서 개인의 욕구나 동기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그리고 부부간의 애정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여 여성 성생활의 질에 대한 특성을 밝힐 수 있었다. 성생활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것임으로 여성 성생활의 질이 중요하듯 남성 성생

활의 질도 중요하다. 남성 성생활의 질은 주로 성행위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성 성생활의 질에 관한 속성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남녀 성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 References

- Bell, R., & Bell, D. (1972). Sexu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women. *Med Aspects Hum Sex*, 136, 141-144.
- Bridges, S., Lease, S., & Ellison, C. (2004). Predicting sexual satisfaction in women: implication for counselor education and training. *J Couns Dev*, 82(2), 158-166.
- Byers, E. (2005).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sexual satisfaction: a longitudinal study of individuals in long-term relationships. *J Sex Res*, 42(2), 113-118.
- Byers, E., & Demmons, S. (1999). Sexual satisfaction and sexual disclosure within dating relationships. *J Sex Res*, 36, 180-189.
- Chang, S. B., Kang, H. S., & Kim, S. N., (1998). The sexual satisfaction in married women. *J Korean Acad Nurs*, 28(1), 201-209.
- Hong, S. M. (2005). *Good sex & good life*. Seoul: HWBook.
- Hong, S. S. (2001). *The effects of Sociotropy-autonomy and sexual satisfaction on femal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 Jang, S. H. (1997). An analytic study in influencing factors for sexual satisfaction of gynecologic & obstetric outpatients. *Sunchon Coll Monogr*, 21, 59-81.
- Kim, H. H. (1996) *A study on the effects of sexual satisfaction on marita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I. Y. (2002). *Effects of husband and wife's values on sexual life in the newly marri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K. S., & Ahn, T. S. (2000). Study on the sexual satisfaction in married women. *Ansan Coll Monogr*, 18, 22-40.
- Kim, S. N., Chang, S. B., & Kang, H. S. (1997). Development of sexual satisfaction measurement tool. *J Korean Acad Nurs*, 27(4), 753-764.
- Kim, Yowan (2000). *A study on relations among level of sexual knowledge, marital communication style and the sexu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o, J. A. (2004). *The influence of sexual satisfaction, communication, and sex connected communication on marriage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Lawler, M., & Risch, G. (2001, May 14). Time, sex and money: the first five years of marriage. *America*, 184, 20-22.
- Lawrance, K., & Byers, E. (1995). Sexual satisfaction in long-term heterosexual relationships: The interpersonal exchange model of sexual satisfaction. *Pers Relatsh*, 2, 267-285.
- Lee, I. S., & Moon, J. S. (2000). Knowledge of sex, attitude toward sex, and sexual satisfaction in married women. *J Korea Community Health Nurs Acad Soc*, 14(2), 396-414.
- Lee, K. O., & Kim, Y. H. (2003). Sexu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J Korean Home Econ*, 41(7), 39-55.
- Nam, Y. J. (2003). *Sexual meaning types and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Rainwater, L. (1966). Some aspects of lower class sexual behavior. *J Soc Issues*, 22, 96-107.
- Renaud, C., Byers, E. S., & Pan, S. (1997). Sexual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mainland China. *J Sex Res*, 34(4), 399-410.
- Rosenzweig, J., & Daily, D. (1989). Dyadic adjustment/sexual satisfaction in women and men as a function of psychological role self-perception. *J Sex Marital Ther*, 15, 42-56.
- Seo, S. Y. (2002). *The perception of love and marital sexuality in early-married coup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Sprecher, S. (2002). Sexual satisfaction in premarital relationships: associations with satisfaction, love, commitment and stability. *J Sex Res*, 39(3), 190-196.
- Symonds, T. (2002). The development of a new sexual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Eur Urol Suppl*, 1, 151.
- Symonds, T. (2003, March). *Development of sexual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Poster session presented at 16th World Congress of Sexology, Havana, Cuba.
- Symonds, T., Boolell, M., & Quirk, F. (2005).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on sexual quality of life in women. *J Sex Marital Ther* 31(5), 385-397.

<부록>

### 성 생활의 질에 관한 설문지

각 문항을 읽으신 후 아래에 예시한 대로 점수를 ( )안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적으로 동의하면 ( 1 )
- 약간 동의하지 않으면 ( 4 )
- 많이 동의하면 ( 2 )
- 많이 동의하지 않으면 ( 5 )
- 약간 동의하면 ( 3 )
-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 6 )

- =====
- ( ) 1. 내 삶을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성생활은 즐거운 부분이다
  - ( ) 2. 내 성생활을 생각하면 나는 좌절을 느낀다
  - ( ) 3. 내 성생활을 생각하면 나는 우울해 진다
  - ( ) 4. 내 성생활을 생각하면, 나는 여자로서의 구실을 못한다고 느낀다
  - ( ) 5. 내 성생활을 생각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낀다
  - ( ) 6. 나는 섹스 파트너로써 자신감을 잃었다
  - ( ) 7. 내 성생활을 생각하면 불안하다
  - ( ) 8. 내 성생활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
  - ( ) 9. 내 성생활을 생각하면, 나의 파트너와 친밀감을 느낀다
  - ( ) 10. 나는 미래의 성생활에 대해 걱정스럽다
  - ( ) 11. 나는 성 활동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 ( ) 12. 내 성생활을 생각하면 나는 당황스럽다
  - ( ) 13. 나는 성생활에 관한 문제들을 내 파트너에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 14. 나는 성과 관련된 행동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 ( ) 15. 내 성생활을 생각하면, 나는 죄책감을 느낀다
  - ( ) 16. 내 성생활을 생각하면, 내 파트너가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거절당했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된다
  - ( ) 17. 내 성생활을 생각하면, 무언가 잃었다는 느낌(상실감)이 든다
  - ( ) 18. 나는 내 성생활의 빈도에 만족한다